

# 日 차세대 리더들 “협력기회 놓치면 득볼 곳은 北·中뿐”

103 창간기획 한국과 일본 싹트는 협력

## 〈3·끝〉 일본 의원 4인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문제 해법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의 표현이자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나카소네 중의원) “일본에는 ‘불 속에서 밤을 줌’의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일한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다케이 중의원)

일본 정치 중심지인 도쿄의 나카타초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징용 문제 해법 제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얽매었던 한일 관계에서 탈피, 서로 대등한 협력자로서 새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본지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전후로 여당인 자민당의 나카소네 야스타카(41) 중의원 의원, 4선이자 외무성 부대신인 다케이 슌스케(47) 중의원 의원,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45) 중의원 의원과 시오무라 아야카(44) 참의원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나카소네 야스타카 전(前) 총리의 손자이기도 한 나카소네 의원은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한국의 진심이 느껴졌다”며 “(일본에) 지금이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이며 한국의 진심에 대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유별할 대목은 (민약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한다면 득을 볼 곳은 북한·중국뿐인 점”이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日 젊은 정치인들의 제언



나카소네 야스타카(41) 중의원(자민당)

“상대방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 작은 것부터 해결을

다케이 슌스케(47) 외무성 부대신·중의원(자민당)

“한일은 배로 오가는 이웃 국가.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갈 존재

후토리 히데시(45) 중의원(입헌민주당)

“윤 대통령 연설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뒤이을 큰 스피치

시오무라 아야카(44) 참의원(입헌민주당)

“보수도 혁신도 한일 문제에선 초당적인 의식으로 참여해야

‘前총리의 손자’ 자민당 나카소네 “韓 진심 느껴… 놓쳐선 안될 기회”

‘4선·외무성 부대신’ 자민당 다케이 “韓 日 미래 향한 협력 가능성 높여”

작년 방한했던 입헌민주당 후토리 “尹 대통령 3·1절 연설에 큰 감명”

모델 출신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우리 세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징용 등 과 같은 어려운 역사·영토 문제가 있고, 거기서 도망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얽매어서도 안 된다”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다. ‘어느 날 아침

에 일어났더니 한일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일은 생기지 않으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할아버지인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80년대 총리에 취임하자, 미국이 아닌 한국을 첫 방문지로 택했을 정도로 한국을 중시했다”며 “어렸을 때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다.

다케이 의원은 “(징용 해법과 관련) 일·한이 각각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리더십에 의해 과제 해결을 향해 전진, 다음 세대 지원 등 미래를 향한 협력 가능성을 높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외무성 부대신인 그는 “적어도 일본 젊은 정치인들은 한국

을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은 없다”며 “한국과 일본은 (하루 만에) 배로 오가는 유일한 이웃 국가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갈 존재”라고 했다.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 의원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뒤를 이을 만한 큰 스피치”라고 했다. 그는 “작년 8월 서울에서 한국의 젊은 의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같은 드라마·애니메이션과 일·한 월드컵이라는 ‘공통 화제’를 공유한 세대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20년 가까이 ‘아니키(兄貴·형남)’처럼 생각하는 정양석 전 국회의원이 있다”

며 “정 의원 같은 선배 정치인들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온 분들”이라고 했다.

1998년 미인대회에 입상, 모델로 활동하다가 2012년 정계에 입문한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한국) 정권이 바뀌고, 양국 관계 개선에 광장히 긍정적으로 나서서 양국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수도 혁신도 양국 관계에는 초당적인 의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산다”는 시오무라 참의원은 “같은 여성 의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친하다”며 “물론 (정치인마다) 정치 사상이라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는 만날 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 與野 “한일관계 개선은 필수” 한목소리지만… 野 “국민지지 없으면 백약이 무효”

野 “피해 배상서 日 참여 끌어내야”

여야(與野) 의원들은 8일 북핵 위협과 전 세계적 경제 위기 대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 의힘 의원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를 위해 내놓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앞으로 피해 배상에서 일본의 실질적 참여를 이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발목이 잡힌 상태로 둘 수는 없다”며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도 발로 중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라 한일 신(新)융합 시대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 미

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은 일본의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외통위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일본 측 의원들에게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과거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대일 항복 문서, 친일 매국 정권(이재명 대표) “제2의 경술국

치”(정청래 최고위원) 등 비판 발언이 잇따랐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작정 비판이 아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외통위의 이상민 의원은 “한일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만큼 이제 뒤집을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가속 페달만 밟은 것 같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반대 여론을 살득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본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은 좋지만, 일본의 사죄 표명이나 전범기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가면 우리 국민 지지를 못 받는다”며 “일본 정부 호응 없이 우리 정부만 부담을 안게 되면 한일 관계 개선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실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 개선은 무작정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 우리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박상기 기자

### 힐링 생태도시 | 엔터 패션도시 | 교통 중심도시

# 성수동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전액 무이자**

## 더블 초역세권, 첨단문화 콘텐츠

### 서울숲 더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 더블 초역세권**  
2호선 독삼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 개발호재 집중**  
각종 정비구역 및 개발지구 등
- 발코니 제공**  
최대 9평의 넓은 발코니 제공
- 각종 세제혜택**  
자금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
- 강남 10분대**  
성수대교, 영동대교, 강변북로 등 이용
- 최신형 4세대 지식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주차관리 시스템 등

떠오르는 新강남 성수의 가치를 완성하는 미래형 지식산업센터 서울숲 더스페이스

**서울숲 더스페이스** THE SPAC 지식산업센터

**02)2118-1111**

www.seoulthespace.com